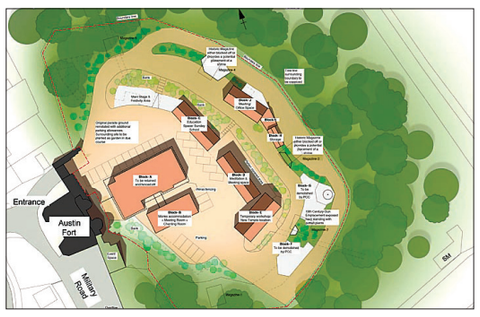
황폐한 영국 요새 '불교센터'로 변신

플리머스시, 포트 오스틴 내 불교공동체 센터 건립 허가

박정현 객원기자


1859년 지어졌지만 최근 방치된 포트 오스틴 전경.



포트 오스틴에 들어설 불교센터 설계도.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잉글랜드 남서부의 항구 도시 플리머스(Plymouth)에 있는 19세기 역사적 명소 포트 오스틴(Fort Austin)이 불교센터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황폐한 건축물이 불교 중심지로 거듭나는 과정에 영국 불교계 관심이 매우 크다.

불교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door)에 따르면 4월 4일 태국의 영국불교신탁회사와 플리머스 지역 불교 공동체가 2017년 3월 시의회로부터 건축 계획을 허가받았다. 이에 시의회와 영국불교신탁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건축 계획에 따르면 이 부지에는 최소 5명 승려를 수용 가능한 숙소, 법당, 회의실, 교육실, 사무실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또한 종교 행사 개최 공간, 과일 및 채소 재배 공간도 마련된다.

아울러 이곳에 불교센터가 들어서면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특히 매년 4월 열리는 태국 불교 축제인 송끄란, 새해 행사 등 대규모 행사도 이곳에서 열릴 계획이다. 다만 유적지가 외진 곳임을 감안, 특별 행사가 없는 경우 센터에서 머물기로 예정되지 않은 불자들은 오후 3시까지만 출입이 허용된다.

1859년 지어진 국방시설
효용가치 잃으며 방치돼
지역 불교공동체 임대차
범죄율 감소 등 기대 높아

플리머스 시의회 관계자는 "이 같은 특별한 행사를 제외하고도 평소에 찬불·명상 수업 등도 열린다. 불자라면 누구든 함께할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승려들은 이곳을 찾는 불자들과 차담 등의 기회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축 계획을 시작한 플리머스 지역 불교 공동체는 현재 도시 내 작은 임대 건물을 사용 중이다. 주택가에 위치해 전용 주차장도 없는 상태다. 그런데 최근 지역 내 불자수가 급증, 해당 공간이 협소해지자 이주 및 건축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와 관련 플리머스 시의회 관계자는 "종교 시설로 탈바꿈을 위해 (건축물의) 사용 변경을 허가했다"며 "유적의 역사적 구조 및 고고학적 가치, 층서법(stratigraphy) 등 다방면의 연구를 통해 손상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포트 오스틴의 주요 시설은 보존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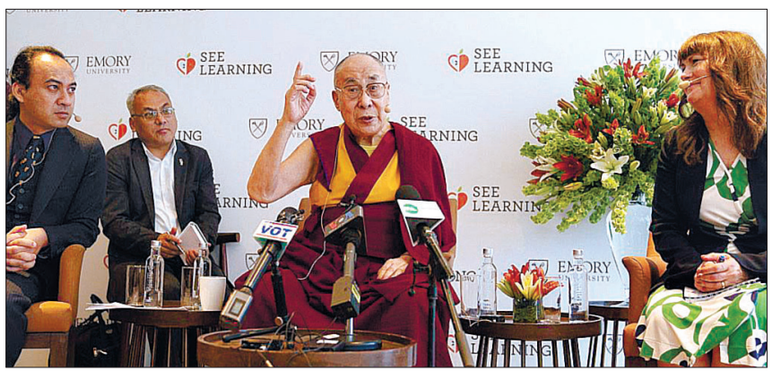
해당 관계자는 또 "이번 작업이 유적지 주변 지역민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도 했다. 오랜 시간 방치돼 황폐화된 유적지 주변은 일부 젊은이들의 불법 마약 사용을 위한 집결지로 전락했다. 이 때문에 시의회는 불교센터의 건설로 지역의 범죄율 감소 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현지 경찰 관계자 역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회적 행동을 유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너무 외진 지역에 있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상태로 방치해둔 상태에서) 만약 어린이들이 이런 곳에서 나쁜 일을 당하면 수습이 더 어려울 것"이라며 불교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트 오스틴은 1859년 국방위원회(Royal Commission)에 의해 지어진 요새다. 해당 건물은 플리머스의 북동쪽으로 향하는 육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지어졌다. 요새 주변은 15개의 총구와 5개의 박격포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점차 요새로서 효용 가치를 잃자, 플리머스 시의회는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기로 한 바 있다.

달라이라마, 인도 환생 언급 '눈길'

中 거듭된 환생자 개입에 "고통 받는 중생과 함께해"



지난 4일 뉴델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응답하는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차기 달라이라마의 환생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일고 있는 가운데, 달라이라마 자신이 직접 환생자와 그 출신을 언급했다. 4월 4일 인도의 '더 위크'는 이 같은 달라이라마 기자회견 발언을 보도했다.

달라이라마의 건강이상설이 종종 제기 되는 가운데, 최근 중국정부는 차기 달라이라마 선출에 대한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달라이라마는 지난 4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후계자 환생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달라이라마가 제안한 행복수업을 주관하는 인도의 바나 재단(Vana Foundation)과 미국 에모리 대학의 상호 협력 하에 행복수업의 국제화를 위한 기념식과 함께 열렸다. 이 자리서 달라이라마는 "다음 환생자는 인도에서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달라이라마는 환생의 개념에 고통 받는 중생들을 위한 자비심이 수반된다고 설명하면서, 환생은 순수하게 종교적이며 정치적 색채가 없다고 말했다. 달라이라마는 "내가 10~15년 정도 더 산다면 중국의 정치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내년에 내가 죽는다면 중국정부는 환생자가 중국에 태어나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중국정부의 주장을 되짚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나의 신념은 〈입보리행론〉에 설하시듯 '허공계와 중생이 남아있고, 그들의 고통이 남아있는 한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중생이 반드시 한 곳에 있지 않듯, 나는 가장 고통스러운 이들이 있는 곳에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달라이라마는 이러한 배경으로 "1대 달라이라마는 정토에 태어나거나 해탈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어디든 고통 받는 중생들이 있는 곳에 나길 발원했다. 14대인 나 역시 동일한 발원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실제 역대 달라이라마 중 4대 달라이라마와 6대 달라이라마는 각각 몽골과 인도에서 태어났다.

한편 기자회견 후에 열린 기념식에서 달라이라마는 SEE(사회·정서·윤리) 교육이라고 불리는 자신의 행복수업에 대해 "종교의 이름하에 증오와 반목이 있는 오늘날 세계에서 인간의 본연의 가치를 중점에 두는 것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교육프로그램의 가치를 설명했다.

달라이라마 재단과 미국 에모리 대학, 인도의 바나 재단이 함께하는 이 SEE교육은 전 세계 600명 이상의 교육 전문가들이 함께하며, 불교의 자비관과 명상과 근간을 두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경영난 끝에 불법관광업 손댄 사찰

日경찰, 시네마현 한 사찰 주지 체포 조사

일본의 사찰경영난에 대한 고민이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찰들이 경영난 끝에 불법적인 사업에 손을 뻗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4월 2일 일본의 '아베마 타임즈'는 불법으로 관광 상품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찰의 사례를 특별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시마네현(島根県) 모 사찰에서 식도락 여행상품을 유료로 운영한다는 소식이 인터넷에 회자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인터넷에서는 사찰이 식도락 여행을 한다는 것으로 화제가 됐다.

더욱이 여행의 광고내용에 '대게를 무제한으로 먹는다'는 문구가 있어 "절에서 살생을 하러 여행을 간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일부 누리꾼들이 "관광버스까지 사찰의 개인소유로 보이는데 허가를 받고 운영하느냐"고 문제를 제기, 추적결과 관광버스는 사찰의 소유인 자가용 버스로 등록돼 있었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도 성지순례상품을 유료로 운영한 사실도 밝혀졌다. 고객은 주로 사찰 신도와 지역주민들이었다.

해당 사찰의 주지스님은 결국 지난달 24일 불법 관광업을 운영했다는 사유로 경찰에 체포, 조사를 받고 있다. 스님은 "사찰 경영난이 심각해진 끝에 관광업을 운영했다.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종교전문 저널리스트인 우카이 슈토쿠 스님은 해당 사안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지역 사찰들이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대중스님들이 다른 직장에 취업해 돈을 벌어오는 경우도 많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스님은 해당 문제에 "말하고 싶은 것은 끝이 없지만, 교계의 세부사정이 곡해될 우려가 있다"며 말끝을 흐렸다.

한편 문제의 발단이 된 자가용 버스에 대해 지나치게 원칙적인 법률적용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닛케이 신문기자로 현재 작가활동 중인 스즈키 스즈미 씨는 해당 사안에 대해 "외국의 경우 우버(UBER)나 리프트(Lyft) 등의 자가용을 사용한 라이드 셰어링 서비스가 활발하다. 이 사안의 경우 관광 상품을 운영했다는 것이 문제지, 고객이 사찰의 차량 사용비 명목으로 금액 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며 원칙에 입각한 과도한 법률 적용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박영빈 객원기자

"재해에도 학업은 멈추지 않길"

美불교대학, 재해 피해 입은 학생 등록금 지원

미국 캘리포니아 유키아(Ukiah)시에 위치한 한 불교대학이 자연재해 피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지원에 나섰다.

4월 5일 불교 매체 라이언스로어(Lion's roar) 보도에 따르면, 다르마렐름불교대학(Dharma Realm Buddhist University)은 미국 사상 최악의 허리케인으로 꼽히는 '허리케인 하비'와 캘리포니아주 사상 최대 규모 산불로 기록된 멘도치노 국유림 산불 사태로 인한 피해 학생들의 학비 및 숙박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수잔 라운즈(Susan Rounds) 다르마렐름 회장은 "우리는 최근 화재 등 잇단 자연재해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목격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수학(受學)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학생들이 교육을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구호 장학금은 개별 학생의 총 등록금을 부담한다. 대학원 과정은 2만1000달러(한화 약2400만원), 학부 과정은 2만8000달러(한화 약 3200만원)에 이른다. 피해 학생이 해당 장학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비상사태관리기관 또는 동급의 정부 기관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소득 또는 재산 손실 정도를 입증해야 한다.

웨인 첸(Wayne Chen) 입학사정 담당 이사는 "우리 학부생의 75% 이상이 장학금 지원을 받고 있다"며 "재난구호 장학금은 학생들을 위한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가계소득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이 방해받지 않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다르마렐름은 캘리포니아 주 멘도치노 카운티에서 유일하게 공인된 4년제 불교대학이다. 아시아 불교 및 명상법 통합 연구 등에 방점을 둔 해당 대학은 서양학교연합회(Western Association of School and Colleges)에서 인증을 받았다. 다르마렐름은 매년 각 프로그램마다 10~12명가량의 수강생을 받는다.

박정현 객원기자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연등승하강 장치기술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